

# 경기도 천연기념물 노거수 후계목 육성연구

(자체연구, 2013~2015)

최충호, 곽명철

## 요 약

본 연구는 천재지변이나 인위적 사고에 대비한 유전자 보존 및 후계목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시되었다. 입목 활력 분석을 위해 전기저항값을 조사한 결과,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천 신대리 백송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엽록소 함량의 경우, 천연기념물 가운데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가 총 엽록소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양주 양지리 향나무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카로티노이드 함량은 엽록소 함량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채취 구과분석에서는 고양 송포 백송 구과가 소나무인 반룡송과 부부송 구과 보다 무겁고, 큰 모습을 나타내었으나 종자생산능력에서는 현저히 낮은 경향을 보였다. 파종 후 발아조사 결과, 고양 송포 백송의 발아율이 가장 낮았으며, 포천 직두리 부부송의 발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후계목 육성을 위한 무성증식에서 접목, 삽목 및 조직배양을 실시하였는데 접목 및 삽목의 경우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 1본만 정상적으로 활착하였으며, 나머지는 고사하였다. 조직배양의 경우, 기내에서 MS배지에 치상된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 등은 현재까지 발근없이 치상당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 I. 서 론

생활주변의 노거수는 우리 선조들의 삶속에서 명목, 선목, 당산목 등으로 역사적 전설이나 고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거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천연기념물, 지방기념물,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노거수(이하 천연기념수)는 수목의 분류학적, 유전학적, 육종학적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역사성에 있어서도 그 지방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향토적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민을 화합하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 더욱이 최근 국보 1호인